



금빛 찬란한 귀경길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29일 오후 전북 정읍시 입암면 내장산요급소 인근 호남고속도로 상·하행선 도로가 귀경길 정제 없이 모두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속도로 양 옆으로 노랗게 물든 ‘황금 들녘’이 가을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다. (헬기조종:광주시소방항공대 대장 박창순, 기장 이정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예산 때문에...교원 명퇴도 ‘좁은 문’

광주·전남 명퇴 수용률 을 53.4%...하반기 170억원 필요

교육 예산 누리과정 편중...새내기 교사 임용도 제 때 못해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도 교단에 남아있는 교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교육청의 예산 부족 등으로 빚어진 일이지만 젊은 새내기 교사들을 제 때 임용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의 하나로 ‘초·중등 교원 명예퇴직’을 확대해 신규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점을 감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재정지민주연합 안민석(경기 오산) 의

원이 29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명예퇴직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전남 지역 교원 78명 중 10명(12.8%)만이 ‘명퇴’ 신청이 받아들여져 퇴직했다. 전남의 경우 을 상반기에도 663명의 공·사립 교원이 ‘명퇴’ 신청을 했지만 497명만 받아들여졌다. 광주는 을 하반기 58명 중 45명, 상반기 240명 중 223명의 교원이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도 교원의 명예퇴직 수용률

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87~90%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41.4%로 대폭 낮아졌고 올해는 53.4%로 약간 올라갔다. 명예퇴직을 신청하고도 명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는 시·도교육청이 정부가 떠넘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등을 감당하느라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당장, 을 하반기 교원들의 ‘명퇴 신청’을 모두 수용하려면 광주의 경우 65억원, 전남 105억3000만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을 해 15억4600만원, 전남도교육청은 93억7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명퇴 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면서 신용 임용자를 제 때 발령하지 못하

는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전남 교육청은 지난 1일 기준으로 임용 대기자를 각각 122명(광주), 33명(전남)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신규 임용 대기자가 115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안 의원측은 파악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미 명퇴 신청을 한 교사들의 경우 학생 교육이나 생활지도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명퇴 자연으로 인한 학생들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 의원은 “정부가 ‘청년 고용 대책’의 하나로 교원 명퇴 확대 방안을 내놓은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충장축제 그 추억 속으로...어울림 속으로...

다음달 7~11일 문화전당·금남로·예술의 거리 일원

미디어아트와 뮤지컬이 어우러지는 개막식, 축제의 꽃인 도심 거리퍼레이드, 추억의 고고장, 아시아 팝 페스티벌... 29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제12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이하 충장축제)가 다음달 7~11일 5일간 ‘추억&어울림(Memory&Harmony)’을 주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축제를 구성하고, ‘Asian-Pop 페스티벌’ 등을 새롭게 만들어 아시아 대표 축제로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다. 개막식은 다음달 7일 오후 7시 동구 5·18민주광장 앞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장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 등 3개 부문에 걸쳐 28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지난해까지 진행된 54개 프로그램을 올해 대폭 축소하는 대신 축제의 질을 높였다는 것이 동구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축제를 구성하고, ‘Asian-Pop 페스티벌’ 등을 새롭게 만들어 아시아 대표 축제로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다. 개막식은 다음달 7일 오후 7시 동구 5·18민주광장 앞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의 영상 퍼포먼스와 함께 박칼린·남경주·최재림 등이 아바(ABBA)의 히트곡으로 만든 갈라 뮤지컬을 선보인다. 또 소찬휘, 말로, 춘자 등의 축하공연을 이어진다. 충장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거리퍼레이드와 거리페스티벌은 다음달 9~10일 열리고, 10일 오후 6시부터는 필리핀 등 아시아 6개국 10개팀이 참여하는 ‘Asian-Pop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이 밖에 추억의 테마거리, 추억의 고고장,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아! 데이’, ‘차이나 데이’ 등 행사도 함께 열린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강운태 전 광주시장

캠코 시민위 맞고소

국제사가 논란이 일었던 ‘캠코(GAMCO)’ 사업과 관련해 고발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고발인들을 맞고소했다. 강 전 시장은 자신을 고발한 ‘캠코 진실규명 및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 위원 8명과 4개 민간단체 대표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전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의단체인 시민위원회가 고발 운운하면서 정치적인 흠집내기를 거듭하는 동안 인내해 왔다”며 “한계점을 넘었다고 판단해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정용기자 jwpark@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6

해질녘 18:19

달출몰 19:59

달지름 08:33

시설물 관리 유의

오늘과 내일 50~150mm의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주	하리고비	19/23	보성	하리고비	15/21
목포	포	하리고비	18/23	순천	하리고비	18/22
여수	수	하리고비	19/21	영광	하리고비	17/23
나주	주	하리고비	17/24	진도	하리고비	17/21
완도	도	하리고비	17/22	전주	하리고비	16/23
구례	레	하리고비	15/22	군산	하리고비	17/24
강진	진	하리고비	16/22	남원	하리고비	14/22
해남	남	하리고비	17/21	흑산도	하리고비	18/21
장성	성	하리고비	16/2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동~남동	1.0~2.5	동~남동	1.5~2.5
남부	면바다	동~남동	2.0~3.0	동~남동	2.0~3.0
	앞바다	북동~동	1.0~2.5	동~남동	1.0~2.5
남해	면바다(동)	북동~동	2.0~3.0	동~남동	2.0~3.0
서부	면바다(서)	북동~동	2.0~4.0	동~남동	2.0~3.0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운동

30

빨래

2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3:26	08:36
	15:54	20:59
여수	10:27	04:03
	22:43	16:24

◇주간 날씨

10/1(목)	2(금)	3(토)	4(일)	5(월)	6(화)	7(수)
19/24	15/22	13/24	12/24	12/24	13/24	13/24

오늘 비...가을더위 꺾인다

29일 함평의 낮 최고기온이 32.4도까지 오르는 등 가을 더위가 이어졌다. 하지만 30일과 10월1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0일 광주·전남지역은 제21호 태풍 ‘두위안(DU-JUAN)’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의 간접 영향을 받아 남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 전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7일에는 광주 시 서구 풍암동이 31도를 기록했고, 28일에는 함평이 31.2도까지 오르는 등 추석 연휴기간 더위가 계속됐다. /김경민기자 kki@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오후 5시를 기해 남해서부 동쪽 면바다에 풍랑 특보가 발효되는 등 다음달 2일까지 바다의 물결도 높게 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30일 이후부터는 광주·전남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22~24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27일에는 광주 시 서구 풍암동이 31도를 기록했고, 28일에는 함평이 31.2도까지 오르는 등 추석 연휴기간 더위가 계속됐다. /김경민기자 kki@

“도토리 줍지 마세요” 무등산 내달 단속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10월 한 달 간 공원 내에서의 식물채취, 셋길 출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가을철을 맞아 도토리 등 야생 식물을 몰래 가져가거나 금지구역에 출입해 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가 늘어남으로 예상되면서 단속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국립공원에서 도토리, 버섯류 등 식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셋길 등 출입금지 구간에 들어갈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무등산사무소 측은 설명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문광선 자원보전과장은 “도토리, 종자를 자연 그대로 두면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거나 봄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와 함께 열어가는 행복한 세상

가을장미의 대향연

제15회 THE 15TH GOKSEONG SIMCHEONG FESTIVAL

곡성심청축제

2015.10.8.(목)~11.(일) / 4일간 · 곡성심진강기차마을

축제주요행사

개막 축하공연 | 심봉사 황성가는 길 행렬 | 향토예술공연 | 심청열린무대(청아~같이놀자)
요들송음악여행 | 가족과 함께하는 ‘청이의 흥’ | 최강 가창력 심청 히든싱어 | 7080 낭만콘서트 | 버블매직 페스티벌
크로스오버 힐링가든음악회 | 군민과 함께하는 ‘청이의 맛’ | 체힐·경연·전시행사 등

주최/주관

곡성군 GOKSEONG COUNTY

곡성심청축제추진위원회

안내·문의 (061)360-8252

www.simcheong.com